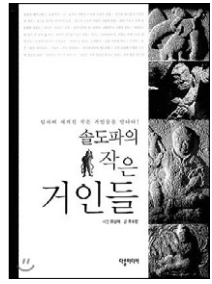


탑 부조상 작가적 상상력 동원해 조명



솔도파의 작은 거인들
글 주수환
사진 유남해
다할미디어 펴냄
2만8천원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반기는 것이 바로 탑이다. 하지만 왜 탑이 절 마당에 세워져 있으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답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

이 책은 한마디로 탑을 장식하는 부조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불교미술에서는 불상과 보살상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탑에 새겨진 금강역사, 십이지, 사천왕과 같은 수호신상들은 그저 보조적인 존재로서만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불상이든 보살상이든 혹은 이렇게 탑에 새겨진 수호신상이란 모두 독자적인 의미와 스토리가 담겨있다.

탑에 새겨진 부조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도상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의 장점은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다는데 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 여겨 한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마저도 허를 찌른다. 예를 들어 금강역사가 부처님을 호위했다는 이야기를 보자. 저자는 실제 불교경전을 살펴보면 금강역사가 부처를 위키에서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불교미술적 측면에서 불교



사진은 원종대사(869~958) 탑비의 귀부와 이수. 이 거대하고 넓게 퍼진 귀부는 지금의 자리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교리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아무리 불교 미술을 뒤적거려도 엘리트조차 그 내용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근거 없는 상식들이야말로 불교미술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그만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장으로 나뉜다. 앞장의 '잇달타 가시니 불타가 오고'는 불탑에 관한 것이고, 다음의 '고승이 가시니 산문이 열렸네'는 승탑에 관한 것이다. 종횡무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

각각 10개의 불탑과 승탑을 다루고 있는데, 불탑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금강역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탑의 부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면 승탑

이야기는 구산선문의 대표적인 승탑에서 시작해 고려와 조선의 승탑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화엄사 사자석탑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사자석탑이 어떤 경전에 근거한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예를 들어 사자비신사지에 있는 탑과 비슷해 <화엄경 입법계품>의 사자비신 비구니의 삼매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고, <화엄사사적>에 등장하는 연기조사의 설화라고도 해석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경전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불탑을 보면서 붓대를 보고 싶어했던 당시 불교도들의 열렬한 염원을 반영해 사리로 압축되던 붓다가 탑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일신라관 컴

퓨터 그래픽'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현대의 우리들이 염원하는 바와 고대인들이 염원했던 바가 다르지 않았음을 명쾌히 그려내고 있다.

그렇다고 저자가 그저 보고 느낀 대로만 주장을 펼치는 것만도 아니다. 저자는 학부 때부터 미술사를 공부해 불교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공자다. 따라서 불교미술에 교리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은 아무리 하해도 철저히 교리에 근거한다. 밀교와 선종을 비교하면서 "밀교는 즉신성불(即身成佛), 선종은 즉심시불(即心是佛)로서 모두 대승불교의 극단적 형태"라고 풀이하는 부분은 간단하지만 교리에 정통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명쾌한 답이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경전 어디에도 '즉심시불'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보이지 않는 추상의 개념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 몫이다. 저자는 불교미술을 통해 옛 선인들의 상상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특히 승탑을 다룬 글에서 승탑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그들의 이념과 승탑의 예술적 특징을 연관지어 설명한 것은 경전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없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 그에게 제자리를 떠난 불상과 보살상보다는 압축된 이야기를 담은 탑에 새겨진 부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도상학 연구에 있어 최상의 소재가 될 듯하다.

이런 저자의 이야기 전개에 더욱 깊숙히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큰 매개체는 바로 이 책에 담긴 주옥같은 사진들이다. 김주일 기자

본질 알면 깨달음 어렵지 않다

깨달음, 이것이다

김종홍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2천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깨달을 수 있다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꿈도 꾸지 않으려 한다. 이 책은 이 같은 통념을 뒤집어 엮는다. 깨달음이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진정한 참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정말로 쉬운 것이 깨달음이라고 역설한다. 참나가 참나를 찾고 있으므로 한번 초점만 바로 맞추면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자 자신의 실존적인 체험에서 우리나라는 선연이기도 하다.

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해 그릇된 방향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깨달음에 대한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와 통념들, 그리고 그릇된 선입견들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안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는다. 따라서 깨달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고 쉬우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난해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120여 편의 글들은 쉽고 명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소재들을 예화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이든 아니든, 존재의 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가 있다. 김주일 기자

심인성질환 치유 사례 한데모아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재행 지음 | BGK 갤러리 펴냄 | 1만3천원



심인성질환의 치유 전문가인 재행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모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지난 살아온 과정과 전생에서 잠재되며, 병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병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되마련된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고 담겨있다.

요즘은 특히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더구나 그 증상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없는가 하면, 또는 대중탕에 갔을 때 물이

두려워 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못 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신이상자로 취급받으며 병원에 갇힌 환자들 중에는 병의된 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저자는 분문 제 3장에서 접신(接神)되어 무속인의 길을 가는 무당들의 실태를 밝히고 무당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무당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태도 꼬집고 있다. 마지막 제 4장에서는 사주팔자란 무엇이며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풀어냈다.

끝으로 저자는 "심인성질환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게 되면 얼마든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심신 통증 치유하는 명상에세이

꽃은 저도 향기를 남긴다

김윤탁 지음 | 미르북컴퍼니 펴냄
1만4800원



물욕을 위해 발버둥치는 현대인이나 더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대의 뜻을 전하는 에세이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명상치유센터인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 웅담샘' 인기 강사 '김윤탁'이 펴낸 <꽃은 저도 향기를 남긴다>이다.

저자는 이 시대가 더 많이 가지라고 할수록, 더 바쁘게 움직이라고 독려하느라 나를 비우고 돌보고 내려놓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일상에 평온이 찾아오고 마음이 치유된다. 이 책의 저자 김윤탁은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이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저자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어쩌다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어 주었다. 그리고 언제 가부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대만져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상처에도 향기가 흐른다"며 사람들에게 향기 힐링 명상으로 평안과 위안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첫 책인 <꽃은 저도 향기를 남긴다>에서 자신의 내면에 담겨 두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글로 꺼내 놓는다. 이 책을 통해 전국을 다니며 상처 깊은 사람들에게 소년 같은 표정과 따뜻한 음성으로 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린 향기명상의 일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운동 등을 하면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세로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 활발하게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기쁨으로 작용하고, 몸과 마음에서 생동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즉 결론은 자비심을 베풀고 이타행으로 살면 우울증에도 안걸리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나비가 날아올 듯한 은은하고 신비로운 꽃그림도 가득하다. 이는 그

녀의 편안한 글과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킨다.

덕분에 이 책은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상에 쫓겨 허덕이고 앞만 보며 달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 준다. 그녀의 글과 꽃그림에 취해 마음에 일어난 물결을 받아들이다 보면, 매우 편안해진다.

저자 김윤탁은 목소리 하나만으로 향기명상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웃고 울리기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도 향기명상에 대한 애기도 빠지지 않는다. "누워 있기만 하는 어르신들의 밤에 발향하면 향기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거의 누구나 좋아하며 삼교 효과도 좋은 레몬 향기를 아로마랩프로 발향하거나 스프레이로 분무하면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유칼립투스 향기를 섞어 아침저녁, 계절에 따라 향기로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라고 향기 요법의 효력을 주장한다.

즉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이나 부조화는 대개 불인감이나 우울증같은 정신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혼자

상처치유 강사의 심신치료법

자비심내면 세로토닌 증가

향기명상 효과도 설명해

방에만 있어야 하는 분에게는 매일 아침 인사 드릴 때, 향기 나는 손으로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조판 한정판대로 제작된 그녀만의 향기명상 CD를 눈감고 차분히 들어 보자.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웅담샘' 향기명상 강의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 명상 CD에는 21가지 심비록도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가 담겼다. 맑고 청아한 저자의 목소리를 타고 전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저자 김윤탁은?

일본 문학 박사, 일본 아로마테라피스트, 일본 지킴이 레이키 마스터이다. 상처가 많은 자신을 치유해 준 향기에 매료되어 향기와 명상을 접목시켜 향기명상법을 개발했고 지금껏 그 신비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부와 여성부의 '건강한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치유 방안'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노인복지 요양원, 장애인 재활센터, 호스피스 단체, 위안부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에서 강의 및 봉사활동을 해 왔다. 한국향기명상학회 회장, 명상센터 '작은명상원' 원장, 인터넷 쇼핑몰 '솔솔향기' 대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명상치유센터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웅담샘'의 전일강사로 활동 중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의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검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주베개등 자매품다양)